

행복 일터

• 0 0

Intro

우리는 여전히 편견에 취약한 편입니다

희망 일터

o • o Y&I

아이마켓코리아 만능가방엔 뭐가 들었을까?

힐링 일터

000

미디어 속 노동읽기

박새로이는 불의 앞에 당당합니다

Contents



지난 한 달 잘 지내셨나요? 요즘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선 손 빡빡 잘 닦고, 눈 비비지 말고,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 두는 거 잊지 말자고요! 덧,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청년실업이 하늘을 찌른다면, 장애인실업은 우주를 찌른다고 하는데요. 이번호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39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2020.04 vol.539

행복 일터

우리에겐.

Plus

Post

20

24

04	intro 우리는 여전히 편견에 취약한 편입니다
08	Topic '어서 오세요'와 '어떻게 오셨어요'는 과연 한 끝 차이 일까요?
10	Info 장애인고용정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2	People 장애인고용, 기업이 나서면 달라집니다
16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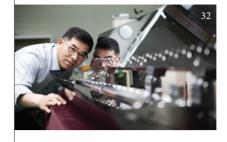
편견에 맞선 제도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 편견, 이젠 바로 잡아야 할 때!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든든하게 지원할게요





희망 일터

인생 2막

28

	마침표는 아직 이릅니다 - 오키드호텔 시설팀장 유성령 씨	
32	명장의 시간 저는 지금,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는 중입니다 - (주)효광 황운기 대표	68
36	Y&I 아이마켓코리아 만능기방엔 뭐가 들었을까?	70
40	더불어 세상 이토록 아름다운 폐지를 보셨습니까?	74
44	기술이 힘! 특수용접을 배운 후, 내 인생이 특별해졌다!	76
48	인생설계카드 뚝딱뚝딱, 목공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8
52	정책이슈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82
56	고용노동 뉴스	



힐링 일터

62

미디어 속 노동읽기
박새로이는 불의 앞에 당당합니다

시사백과 음식이 경제를 만났다?! 맛있는 경제 시사용어

직장탐구생활
비즈니스 이메일,
제대로 쓰고 계십니?

고민타파
이건 너무하다 싶을 땐,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셔야죠

저녁이 있는 삶	
금테 두른 다육이로 돈 좀 만져 볼	까L

직장인 건강상식 옴마야! 내 눈!

주말에 뭐 할래? 춘삼월에 만난 봄의 얼굴들

애독자 모의고사









Prejudice



우리는 여전히 편견에 취약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지난 해 기준 약 252만 명입니다. 이 중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은 불과 88만 명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6명은 실업자라는 말인데요.

각 기업에 장애인고용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취업 성공률이 매년 이쉬운 결과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장애와 직업능력을 동일시 여기는 편견이,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장애인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대가로 지불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립액'은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립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채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뜻일 텐데요.

이에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인상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한 정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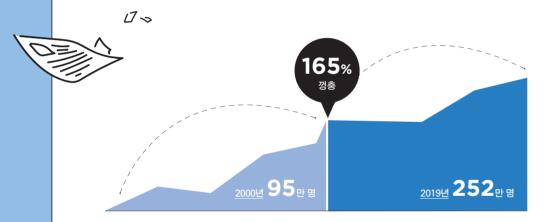


행복 일터 Topic 08



'어서 오세요'와 '어떻게 오셨어요'는 과연 한 끝 차이 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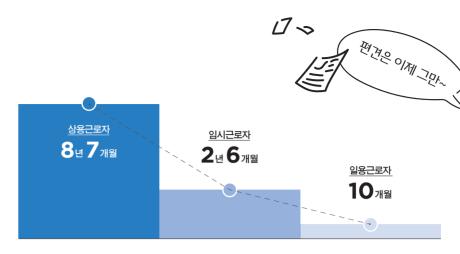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별이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서 오라는 반가운 인사말과 방문 이유를 묻는 인사말이 교묘하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장애인고용의 현주소를 들여다봤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19년 전보다 무려 165%가 껑충 뛰었습니다. 이 중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을 모두 합쳐도 겨우 34.9%에 그칩니다.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라도 그럴듯한 위로는 못됩니다. 임금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장애인 취업자들 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취업이 어렵다보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영업의 길을 택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예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경우도 있고요.



장애인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평균 5년 10개월입니다만, 여기에도 아쉬운 결과들이 숨어 있습니 다.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상용근로자 근속기간이 보완해준 셈이기 때문 입니다. 장애인 실업자 중 89.8%가 '임금근로'를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불안정한 근로형태를 개선하 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8.8%	27.4%

장애인고용시장을 회의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편견이기도 하고,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 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례도 아주 많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데 있습 니다. 전문직 종사자보다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건데요. 전문성이 결여된 일자리는 평생직장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만큼, 양적 팽창보다 질적 수준을 높인 일 자리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후천적 요인 88.1% <u>후천적질환</u>

56%

장애 발생원인 중 88.1%가 후천적 요인입니다.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건데요.

이참에 '장애 때문에…'라는 단서를 아예 떼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장애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먼저 보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9

Info

10

장애인고용정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2020년, 새로워진 정책방안을 소개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인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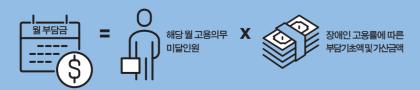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정해진 의무고용률을 따르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가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책임을 강화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 애인 고용미달 인원수만큼 더 많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2019년		2020년
이행률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가산율
3/4 이상	월 1,048,000원	월 1,078,000원	-
1/2 이상 ~ 3/4 미만	월 1,110,880원	월 1,142,680원	6% 기산
1/4 이상 ~ 1/2 미만	월 1,257,600원	월 1,293,600원	20% 가산
1/4 미만	월 1,467,200원	월 1,509,200원	40% 가산
미고용	월 1,745,150원	월 1,795,310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적용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 됐는데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공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채 용해야 하는데요.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한 연 간 합산 금액을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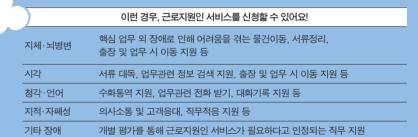


인상된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사업주를 응원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잘 지킨 사업주(민간기업 3.1%, 공공기관 3.4%)에게 지급되 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가 올해부터 인상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월별 초과 고 용된 장애인근로자 수에 성별 또는 중 · 경증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60만 원까지 지 원해왔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업무를 도 와주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지원인의 규모를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기존 555억 원에서 71% 오른 948 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도 넓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역시 중복 여부에 상 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인턴제)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에게만 제공되었던 '중증장애인 인턴제' 혜택 이 올해부터는 경증장년층장애인을 포함한 총 400명에게 돌아갑니다. (취업성공패키 지) 저소득층 장애인 유형을 신설하여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총 9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고용)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 가도 기존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돼 중증장애인구직자가 직무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u>행복 일터</u> People 정리 이선주 | 사진 스타버스 제공 12





장애인고용, 기업이 나서면 달라집니다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진하는 것. 직장생활의 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취직을 했다는 사실에만 만족'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다릅니다. 벌써 2년 전. 장애인근로자를 점장 자리에 떡 하니 올렸으니 말입니다.

\mathbf{Q}_{-} 국내 1호 점장이에요. 당시 심정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사회적으로 선례가 되는 거라 너무 자랑스러웠죠. 저와 알고 지내는 장애인 지인들조차 놀라워했어요. 스타벅스라는 대기업에서 장애인도 점장이 될 수 있다니, 스타벅스에 입사하고 싶다는 지인도 있었죠.

Q_ 스스로 장애인이라서 승진할 수 없을 거라 지레 포기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서비스 업계는 고객과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니까요. 청각장애가 있는 저에겐 어느 정도 소통의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장애인근로자 가 점장까지 승진한 전례도 없어서,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Q 비교적 빠른 승진인가요?

2011년 9월에 입사했으니, 올해로 딱 10년 차인데요. 빠른 승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늦은 편도 아니에요.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해봤을 때 그래요.

Q_ 다행히 승진 차별은 없는 모양이네요. 하지만고 객을 삼대하는 일은 또 다른 부류의 일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장애가 티가 나지 않다보니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참고로 저는 2살 때 고열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었어요. 보청기를 착용하면 소리를 듣긴 하지만, 입모양을 보지 않으면 대화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제 뒤쪽에서 고객님이 저를 불렀다? 당연히 못 듣거든요. 하지만 고객님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으니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갖게 돼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불만사항이 접수되기도 했고요. 사람마다 톤과 억양이 다양하다보니 주문내용을 못알아들을 때도 많고요.

Q 오해 받을 땐 어떻게 상황을 해결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다들 이해하세요.

Q_ 그런데,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아예 못 듣는 건 아닌가 봐요.

사람마다 장애 정도가 다르니까요.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화를 할 줄 알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처럼 보청기와 구화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구화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수화를 하기도 하고요. '청각장애인이니까 안 들릴 거야'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편견인셈이죠.

Q_ 점장이 된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처음 점장을 맡았던 매장을 떠나 지금은 새로운 매장으로 발령받았어요.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나날들인데요. 그 간 '제 마음'이 많이 단단해진 게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점장이 되고자 스스로 단련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면 장애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회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Q_ 제2의 점장을 꿈꾸는 후배 바리스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장애 때문에 힘들어, 라는 생각을 우선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느 회사든 내 위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계발은 물론, 사람과의 관계 역시 타인의 노력보단 '내 노력'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장애 때문에 아쉬웠던 경험들이 있다면 오히려 좋은 발판으로 삼길 권하고 싶고요. 속도는 더디고 느리지만, 노력과 열정으로 꽉 찬모습이 되면 사람들이 반드시 진가를 알아볼 겁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승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과거의 역사를 뒤집고, 스타벅스는 장애의 벽을 허문 그야말로 모범적인 근무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애인고용 초기 시절 진통은 없었는지, 장애인인사관리를 담당하는 파트너행복추진팀 박종환 파트너를 만나 회사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바리스타는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데요. 장애인바리스타로 채용하고자 했던 의도가 궁금해요.

스타벅스는 2007년부터 장애인 파트너 채용을 시작했는데 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취업난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채용을 시작했어요.

○ 장애인고용을 앞두고 사내 의견이 분분하지 않 았을까 싶은데요.

소통이 중요한 커피전문점에서 장애인이 일해도 괜찮을까 를 두고 사내는 물론 고객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주셨죠.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와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일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는 판단이 섰어요.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도 잘 정착하고, 고객들 반응도 좋아서 매년 확대 채용을 하고 있고요.

채용 대상이 되는 장애유형이 따로 있나요.

아뇨 전혀요. 차별을 없애자고 시작한 채용인데, 장애유형에 제한을 둘 순 없죠. 스타벅스 장애인채용은 3無정책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그 어떤 것에도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장애인 유형도 9가지고요.

○ 7년째 장애인 인사관리 업무를 맡고 계신데, 개 인적으로 '이건 편견이었구나'싶은 부분이 있다면.

학과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장애에 대한 특징이 오히려 편견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도 음악 감상이 취미일 수 있거든요. 뮤지컬이나 공연을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장애인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소소한 편견들인 셈이죠.

Q_ 권순미 점장님이 스타벅스 국내 1호 점장이 되 셨는데요. 현재 점장이 된 또 다른 장애인근로자도 있을까요.

스타벅스 점장은 여러 과정을 거쳐 검증이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49명의 장애인근로자가 점장, 부점장, 수퍼바이저 등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들 모두 지속적으로 노 력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회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 보호 자, 비장애인근로자와 수시로 면담하고 있어요.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를 대 상으로 공감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Q_ 스타벅스 바리스타를 꿈꾸는 장애인구직자들을 위해 채용기준을 알려주신다면.

스타벅스는 업무적으로 완벽함보다는 스타벅스의 문화를

최대한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고 있어요.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이며, 다양한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열정 넘치는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Q_ 여전히 장애인고용을 주저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장애인근로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본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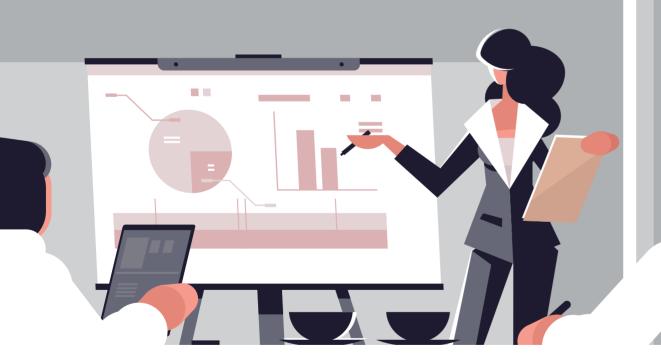
제가 장애인 바리스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든 생각인 데요. 업무능력은 개개인의 차이이지 장애 여부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비장애인근로자 간에도 업무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장애인근로자가 우수한 기량을 뽐내는 경우도 많고요.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봐'라는 마음 때문이라면,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행복 일터 System 글 펴진식 16

우리에겐, 장애인고용 편견에 맞선 제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제도가 없다면 제 속도를 낼 수 없겠죠. 장애인고용의 속도를 높여줄 '상황별 맞춤 제도들'입니다.



17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어떤 유형의 장애인이라도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한 사업장 을 뜻합니다. 지체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사로가 너무 가파르지는 않는지,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블록을 마련해 두었는지 등 어떤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근 로환경을 갖춰야 하죠. 상대적으로 취업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2002년에 마련된 제도인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설치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바로 이 부분을 정부가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거나 장애인 채용을 목적으로 표준사 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시설은 물론,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요.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제도랍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천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는 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표 준사업장을 말합니다. '모회사가 있다'는 점이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크게 다른 점인데요. 2008년 도입 된 이 제도는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장애인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좋고,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충족할 수 있어 좋은' 일석이조의 제도랍니다. 모회사가 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죠. 제도 도입 이후 포스코. SK, LG, 삼성 등 국내 주요 기 업들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상당 부분의 금액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담이 아주 사 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이에 정부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 니다.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최대 15억 한도 안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8년 상환 조건(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 1%)으로 융자가 가능하답니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라면 작업시설 · 편의시설 · 부대시설 의 설치 및 구입, 생산라인 조정,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금액에 관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이 일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책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책상 높이가 장애인근로자 개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장애인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사업주의 마음 또한 불편할 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특수 작업의자, 경사각 작업테이블 등 직업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기들을 지원하는 건데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 계획 중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답니다. 단,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100만 원 이상의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로소등억기기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 원(중증500만 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 원 이상의 기기

(장애인근로자 퇴사 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하며, 반납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출퇴근용 승합자동차가 필요한 사업주를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통근용 승합차를 구입하는 비용 자체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이것 말고도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금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전액을,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1천만 원에 1천만 원 초과 금액의 2/3을 더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죠.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할 때에도 예외 없이 지원 혜택이 마련돼 있는데요. 반드시 출퇴 근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장애인근로자의 자택에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해 업무효율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한도로, 사업주당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회사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장애인근로자는 보다 편안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동시에 작업지도원을 위촉 · 선임 · 배치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업무적응을 도운 사업주에 게는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90일 이전에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1명당

월 14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하는데요. 충분한 업무적응이 가능하도록 최대 3년까지 고용관리비용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근로자가 5명을 초과하면 안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인턴제, 걱정 없이 실시하세요



많은 기업들에서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회사를, 회사는 개인을 검증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사업주 입장에선 인턴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인턴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턴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월 8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최대한도 65만 원, 최대 6개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0개 유형의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장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한 사업 주라면 '장애인 인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전일제 운영(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단시간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탄력적 약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제공, 멘토 지정 운영 등의 제도는 인턴기간 동안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 중증장애인 10개 유형 : 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초과인원 만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고용이 단순히 '의무'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올해부터는 고용장려금 지원금액이 인상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경증장애인	여성 중증장애인	남성 경증장애인	남성 중증장애인
5만 원 인상	20만 원 인상	변동 없음	10만 원 인상
기존 40만 원···· 45만 원	기존 60만 원 🛶 80만 원	기존 30만 원 유지	기존 50만 원 ┅ 60만 원

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해당분기가 지난 후 장애인근로자에게 임금이 이체된 이후에 전자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월 단위로 신청하고자 할 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중소기업인턴제지원금,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직장복 귀지원금' 등의 장려금을 이미 지원받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상지원: 지원 기준가액 100만 원 미만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에 한합니다.

<u>행복 일터</u> Plus 글편집실 **20**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든든하게 지원할게요

01.

출퇴근용 본인 명의 차량을 개조해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안전한 운전을 위해 차량 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이한 출퇴근을 돕기 위해 정부가 1,500만 원 한도 안에서 차량 개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차량에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레인'은 물론, 차량의 지붕을 높여 탑승공간을 확보해주는 '하이루프', 하체 경련이 있을 경우 발이 페달 등에 끼이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경련방지플레이트' 등의 차량개조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0여 가지의 다양한 차량개조가 가능한데요. 양팔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라면 브레이크나 페달, 기어변속, 방향지시등의 조작을 모두 발로 할 수 있게 하는 '족동장치' 설치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는 마련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신청하고 추후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02.

서류낭독이나 물품이동은 근로지원인에게 맡겨주세요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 부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낭독이나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등 의 일을 돕거나 대신 처리해주는 건데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는데요. 서 비스 기간은 1년이지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신청하면 되니 사용에 제한은 없답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아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장애가 불편한 요소가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물론 취업이 멀게만 느껴지는 구직자까지, 모두를 위한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훈련수당 받으면서 담당 업무를 미리 체험해 보세요

희망하는 기업에 드디어 취업을 했는데, 막상 업무를 시작하고 보니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담당할 업무를 미리 경험해보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중증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미리 배워볼 수 있습니다. 직무지도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어서 궁금한 점들은 바로 바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6일 정도의 훈련준비 기간이 끝나면,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을 실시한 후 정식채용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편, 훈련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훈련수당도 지급되는데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훈련수당
훈련준비금	4만 원(6일 이상 출석 시 1회 지급)
훈련일비	1만 7천 원(1일)
숙박비	1만 원(1박)

훈련생의 자격조건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는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만약 취업한 훈련생에게 적응지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라면, 최대 12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를 실시합니다.



04. 직업능력 향상!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선 본인 스스로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텐데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직업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 ♥ 맞춤훈련센터(서울, 인천, 경기, 천안이산, 전주, 창원, 제주)
- ₾ 발달장애인훈련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올해 6개소가 추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
- ☑ 폴리텍 대학 및 민간훈련기관

해당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훈련생 1인당 참여수당은 20만 원으로, 교통비(월 5만 원)와 식비(월 6만 6천 원)도 따로 제공됩니다!

05. 내 적성에 꼭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드릴게요

일은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 습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어떤 직무가 나에게 맞는지 설정하고. 직업훈련을 받은 후 취업알선까지 도와 주는 원스톱 프로그램인데요. 구직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상담 단계부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수당 도 지급되는데요. 취업 후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 지'는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중졸 및 고교 중도탈락자 등 진로가 불안정한 위기청소년은 만15세 이상부터 참여가 기능합니다.

1단계(상담 및 취업계획)	2단계(직업훈련)	3단계(취업알선)
원요건(직업평가 실시, 2회 이상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충족 시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만 8천 원 (월 최대 284,000원) 지급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참여수당 15만 원		

06.

양성교육을 마쳤다면. 동료지원가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중증장애인이라면, 동료지원가로도 활동 이 가능합니다.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발굴해 상담하고, 이들의 취업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조모임 결성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거데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동료 지원가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수료자
- ②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 ③시·도(광역) 정신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과 졸업자
- ⑥「평생교육법」 상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⑦기타 ①∼⑥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참고로, 동료지원활동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미취업 중증장애인이 취업지 원서비스를 받게 되거나 취업으로 연계되면 연계수당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다양한 장애인고용정책들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 중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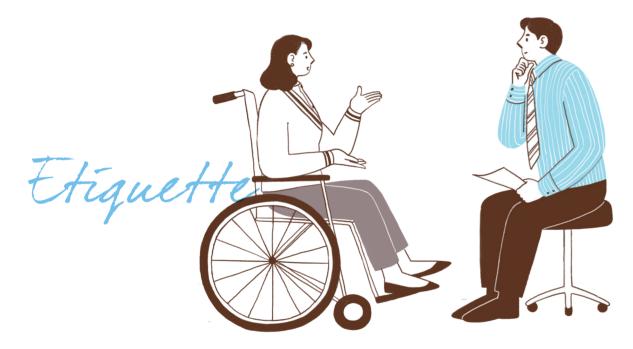




직장 내 편견, 이젠 바로 잡아야 할 때!

Post

지난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화되었습니다. 장애가 직업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기 위해선 '잘못된 편건'부터 거둬내야겠죠? 장애인근로자와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을 모았습니다.



에 티 켓 . 0 1



지체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재활 및 보조기구의 발달로 지체장애인의 취업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턱이나 계단은 지체장애인 근로자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요. 회의장소를 정할 땐 문턱이 없는 곳으로 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반드시 비워두는 에티켓을 지켜야합니다. 간혹 휠체어를 말없이 밀어주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도움을 줄 땐, 반드시 상대방의사를 확인해주세요. 엘리베이터의 문을 잡아주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체장애인도 경우에 따라 체육활동이 가능합니다. 사내 행사 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물 어본다면 좋겠죠?

에 티 켓 . 0 2



뇌병변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뇌병변장애는 뇌의 이상으로 마비가 생겨 언어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적능력 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떨림이나 경직 등의 장애만 고려된다면, 취업활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뇌병변장애가 있는 동료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때는 그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하고 요청해주세요. 함께 걸을 때는 보행 속도를 맞추고, 넘어졌을 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와주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회의 중이나 말을 시작할 때,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밝혀주세요.

복도나 통로에서 마주쳤을 땐, 멀리서 인사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인사를 건네는 게 좋습니다.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입문은 완전히 열어두거나, 완전히 닫아주는 것이 안전한데요. 위치를 알려줄때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걸음 앞에 문이 있어요", "1미터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처럼 말이죠. 회사 내부에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라면, 음식 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식당 구조가 복잡하다면 배식을 도와주세요.

에 티 켓 . 0 4



청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구화(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대화하는 것), 필담(종이에 적어 대화하는 것) 등 의사소통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특히 구화를 이용하는 동료와 함께 일한다면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입모양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회의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간중간 청각장애인 동료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회의 내용을 혹시 놓치지 않았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업무지시를 할 때는 말보단 글로 써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에 티 켓 . 0 5



언어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언어장애란 발음이나 말더듬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장애를 말합니다. 대화가 어려울 뿐이지, 지적능력이나 직업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따라서 대화할 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필요한데요. 먼저, 대화 속도가 느린 만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고개를 끄덕여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언어장애인 동료가 말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통화보다는 팩스.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게 훨씬 능률적입니다.

에 티 켓 . 0 6



지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해 생활능력이 저하되는 지적장애인은 반복 훈련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업지시를 할 때는 물론 근무시간이나 복장, 회사 규칙 등도 반복 해서 설명해주거나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이 좋은데요. 업무지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해 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간혹, 반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 티 켓 . 0 7



자폐성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로, 눈 맞추기를 피하거나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보입니다. 작업 수행 전. 충분한 설명과 예행연습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 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강점을 보 입니다. 낯선 장소나 낯선 사람 등 달라진 상황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 려가 필요하며, 돈 계산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옆에서 챙겨주는 게 좋아요!

Q&A로 보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상시근로자가 2명뿐인데,

교육을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는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 주와 전체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 자 5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 자 료를 배포 · 게시하는 간이교육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간이교육 시.

교육을 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 실시일과 교육자료 배포 · 게시한 현장 사진을 3년간 보 관하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는 한국장 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후에 또 추가 입사자가 생겼습니다.

추가 입사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출 장, 휴가 등으로 인해 교육을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서도 연내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30분씩 2회

실시해도 될까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지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30분씩 2회 분할교육도 허용합니다.

* 교육 실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8

44

내 인생이

특별해졌다!

마침표는 아직 이릅니다

특수용접을 배운후,

48

32

뚝딱뚝딱. 목공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는 중입니다

36

만능가방엔 뭐가 들었을까?

52

집행하겠습니다!

40

이토록아름다운 폐지를 보셨습니까?

56

고용노동뉴스

실직의 기로에 선, 34살 최연소 지점장

강원도 원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5분 남짓한 거리 승강기 회사에 취직해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 위치한 오키드호텔

성이 취재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등 호텔에 있는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시설팀장 유성령 씨 입니다.

전문지식 없이는 유지조차 어려운 시설관리업무를 21년간 안이었지만, 사업을 계획하던 제게는 막다른 길처럼 느껴 영업맨으로 살아왔다는 그가 하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결에는 직장을 잃고 헤매던 시절 취득한 자격증이 있 습니다. 이보다 앞선 배경에는 위태로웠던 지난날도 있죠. "대학졸업 후 대우전자에 입사해 가전대리점 영업담당으로 📉 없어. 잠시 보험업에 몸담았지만 역시 70세 이상까지 할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사람들 대면하는 일이 저와 잘 맞 았죠. 그렇게 필드 영업으로 21년을 일했는데, 50대에 들 어서니까 은근히 불안해지더라고요. 승강기 유지관리를 해 상도 많이 받아 해외연수도 자주 다녀왔던 그가. 별안간 실 주는 회사를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설립을 목표로 큰 결심을 하게 된 그는 경험삼아 곧장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로비에 들어서니 중년의 남 개정으로 사업자등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설립 자체가 어려 워진 것이죠.

> "이전에는 1인이 사업자를 낼 수 있었는데, 법률이 바뀌면 서 최소 8명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했어요. 안전을 위한 법 졌죠. 실제로 당시 많은 소규모 회사들이 큰 회사에 흡수되 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 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다녔던 승강기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실직, 34살에 최연소 지점장이 되었던 그가, 사내외에서 직을 하리라곤 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침표는아직이릅니다

오키드호텔 시설팀장 유성령 씨

정년을 앞두고 '이제 사회적 쓰임이 다한 것은 아닐까' 리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는다면 단연코 유성령 씨를 만나야 합니다. 21년 영업맨 경력을 던져버리고, 기술맨으로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그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기는 아직 이릅니다.



3개월만의 자격증 취득 퍼레이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날들이 시작됐지만, 회 사를 설립하고자 했던 계기가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찾 기 위해서였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으나 기술로 먹고 살고자 도모한 일이니, 자 격증 공부라도 일단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어요. 관련 서적을 보며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에너지관리 국비지원 과정을 운영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영업직 에 익숙했던 터라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폴리텍대학 내부에 갖춰진 작업장은 자격증 실기시험을 준 비하기에 적격했습니다. 덕분에 교육과정에 등록한 후 3개

월간 취득한 자격증만 여러 개에 달했죠.

자격증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해냈다'는 보람이 쌓였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30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제가 다니던 폴리텍대학에 설 명회를 왔더라고요. 중장년 취업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 원내용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이력서나 자기소개 서 작성 등 실질적인 내용도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열심히만 준비하면 재취업도 문제없겠다 싶어. 이때부터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각종 자격증 취득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고요"





승강기기능사, 전기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소방안전관 리자 1급, 온수온돌기능사, 타일기능사 등 중장년일자리희 망센터를 믿고 집중한 결과, 그가 취득한 자격증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탄탄한 만큼 취업의 문도 자연 스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픈을 앞두고 있던 오키 드호텔 측에서 그의 이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전 경험 은 없었지만 단기간에 이만큼 준비할 정도로 열정이 넘치 는 사람이라면, 분명 책임감이 막중할 것이라는 게 호텔 측 의견이었습니다. 호텔이 완공되기도 전, 덜컥 시설관리 책 임자로 채용된 유성령 씨는 매일같이 회사로 출근하기 시 작했습니다. 건설 과정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죠. 하지만 유성령 씨는 아직도 목이 마르다고 말합니다.

"퇴근 후에도 하루 3시간씩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의 매력은 아무래도 '알면 알수록 자꾸만 더 알고 싶어 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관 장하는 진짜 기술자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하면 한다'는 끈기와 집념. '여전히 늦지 않았다'는 용기. '아직도 배우겠다'는 열망.

그를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의 온갖 단어들이 지금 이 시간에 도 오키드호텔 기계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게기ト 사감보는 좀 있지 마이니다"

처음 뵈었은 때부터 책임감이 무척 강한 분이나는 건

악수있었어요.

그께서 고민도 하지 않고 30분 만에

채용은 건재했습니다.

함께 입상면서 등 생각은

'역시 내가 사감 보는 눈이

좀 있군'이었고요(웃음). 이렇게 좋은 분과

함께 회사의 악난은 된 한 수 있어

행운이 가는 생각이 듭니다.

મગ્રહ્મ ૧૫૫૧૫૫

함께하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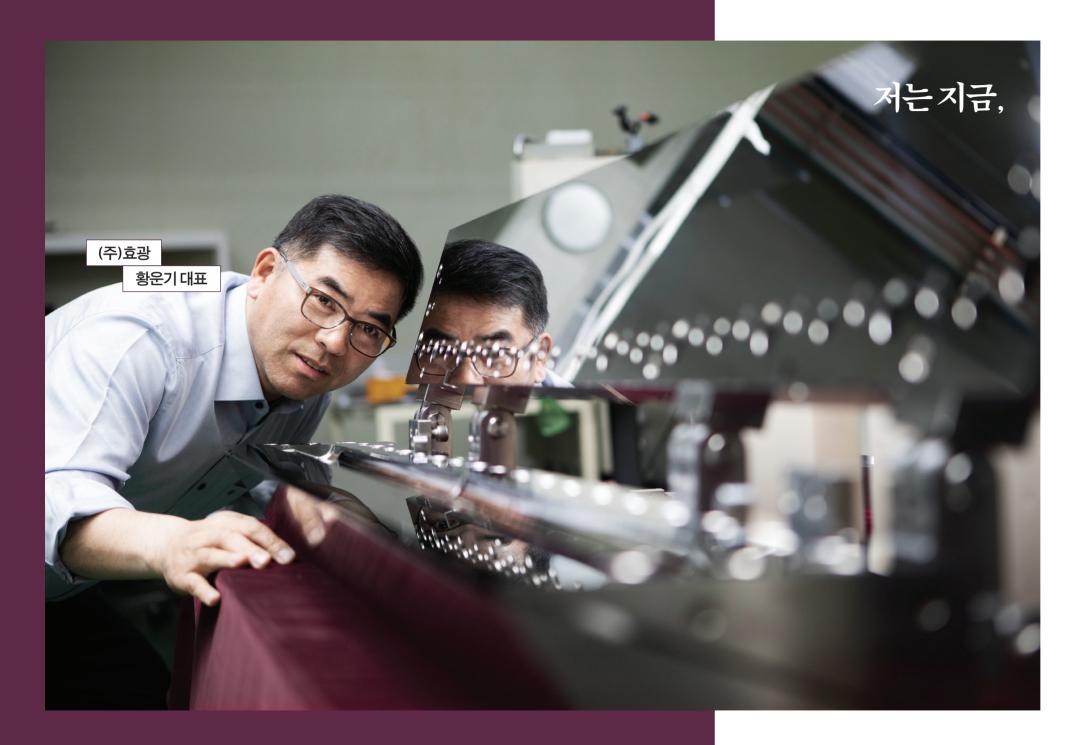
오키트호텔 백호현 때문 드김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는 중입니다

재봉틀 고장이 반가웠던 꼬맹이

"운기야, 재봉틀 고장 났다~" 소리에 곧장 달려가 뜯어보던 아이. 황운기 대표가 기억하는 어릴 적 단상입니다. 달리 배운 것도 아닌데 고장 난 기계를 용케도 잘 고치던 아이는, 슬롯다이 코터용 노즐(코팅액을 균일하게 분사시키는 코팅 기계용 노즐) 국산화로 업계에 반향을 일으킨 ㈜효광의 주인입니다.

"슬롯다이 코터용 노즐은 LCD, 2차 전지 등을 코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부품인데요. 어릴 적에는 지금의 제 모습을 상상 조차 못했어요. 학교도 겨우 겨우 다녔거든요." 전라남도 순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재학 시절 내내, 서무실에 불려가길 일쑤로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등록금을 제때 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겨우겨우 다닌학업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질리 없었습니다.

"집에 빚이 있었어요. 제 학비를 감당할 여력이 안됐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영 체질에 안 맞더라고요. 형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직업훈련학교에만 보내달라고. 나중에 커서 갚겠다고요." 전남기계공고에 합격하고도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어린 시절의 황운기 대표는 직업훈련학교 기계과에 들어가고 나서야 '제 옷을 입은 듯' 편안했다고 회상합니다.

기계로 제품을 깎고 가공하는 일이라면 늘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럴 때마다 심장에선 자꾸만 '뜨거운 것'이 목젖까지 올랐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성기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성기의 유효기간은 스스로가 정할 뿐, 타인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능한국인으로 실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긴 이르다는 황운기 대표의 말입니다.

'버거웠으나 버겁지 않았던' 주경야독의 시절

배움엔 끝이 없다던데 직업훈련학교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년씩이나' 되는 교육과정이 그에게는 '겨우 1년' 정도로 여겨진 건데요. 직업훈련학교 졸업 후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그는 '취업을 하되, 학업도 병행하자'라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월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 학교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요. 당시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회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병행이 어려웠거든요. 다행 히 두 번째로 들어간 기계가공회사에서 허락을 해줬습니 다. 그길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영등포공고 산업재 특 별학급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일을 마친 후 이어지는 학업은 고됐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버거웠을 뿐, 심리적으론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가벼웠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 후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 금형설계과에 입학하며 내공 쌓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황운기 대표에게 그간의 시간들은 '고생' 보다는 '보람'에 더 가까워보였습니다.

약속은 목숨이다, 라는 신조를 반드시 지켜냈어요. 힘든 시기였지만, 일하는 게 재밌었죠.





문래동 7평짜리 작은 회사, (주)효광

"여기서 일해 보지 않을래?"

문래동에서 성형연삭 공장을 운영하던 삼촌의 제의를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기계가공 일이라면 늘 자신 있었고, 친동생이 이미 삼촌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혈연단신으로 올라온 서울생활에 따뜻한 불씨를 지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철야를 거듭해도 회사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것이었죠. 회사 부채는 갈수록 쌓여만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였나 싶어요(웃음). 그런데 잘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빚을 끌어안고 삼촌이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했죠. 그런데 인생이란 참 예측이 불가해요. 회사를 인수받자마자 IMF가 터졌으니까 말이에요."

굵직한 대기업도 맥없이 무릎을 꿇던 시절, 부채가 산더미 인 작은 회사가 망하는 건 이상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오 히려 이상한 건, 빚더미에 앉은 작은 회사 '효광'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목숨이다, 라는 신조를 반드시 지켜냈어요. 힘든 때일수록 납기일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한 게 욕심을 내지 않은 거였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문을 받고, 불량 없이 납기일을 맞췄죠. 힘든 시기였지만, 일 하는 게 재밌었어요."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의 신조는 효광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20억 원 적자라는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도, 그의 신조를 앞서 확인했던 거래처 사람들은 그의 곁을 든든히 지켜줬습니다.

한다면 한다! 끝나지 않은 소년의 꿈

스크라이버 관련 특허(LCD 액정을 자르는 장치)는 물론 그간 해외에 의존해왔던 '슬롯다이 코터용 노즐' 국산화에 도 성공한 황운기 대표. 그의 신념이 만든 지금의 ㈜효광은 이제 전 세계가 알아보는 강소기업입니다. 하지만 그의 꿈 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낸 것보다 아직 해내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주력분야인 LCD와 반도체 분야를 넘어 이제는 정밀가공 기술이 필요한 첨단분야로 영역을 넓혀보려고 합니다. '슬롯다이 코터용 노즐' 국산화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시대에서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을 멈추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황운기 대표는, 그래서 국내 최고의 기술장으로 인정하는 '기능한국인'타이틀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한정짓지 않는 한 전성기에 유효기간은 없다며, 여전히 눈을 밝히며 꿈을 이야기하는 중년의 남자. 밤늦게까지 이어졌던 어린 소년의 학구열은 ㈜효광 현장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마켓코리아 만능가방엔 뭐가 들었을까?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당연히 직원들이 희생해야한다는 생각을 뒤집은 회사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오히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산업자재 유통서비스 기업 '아이마켓코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숨쉴틈없다고, 숨못쉬면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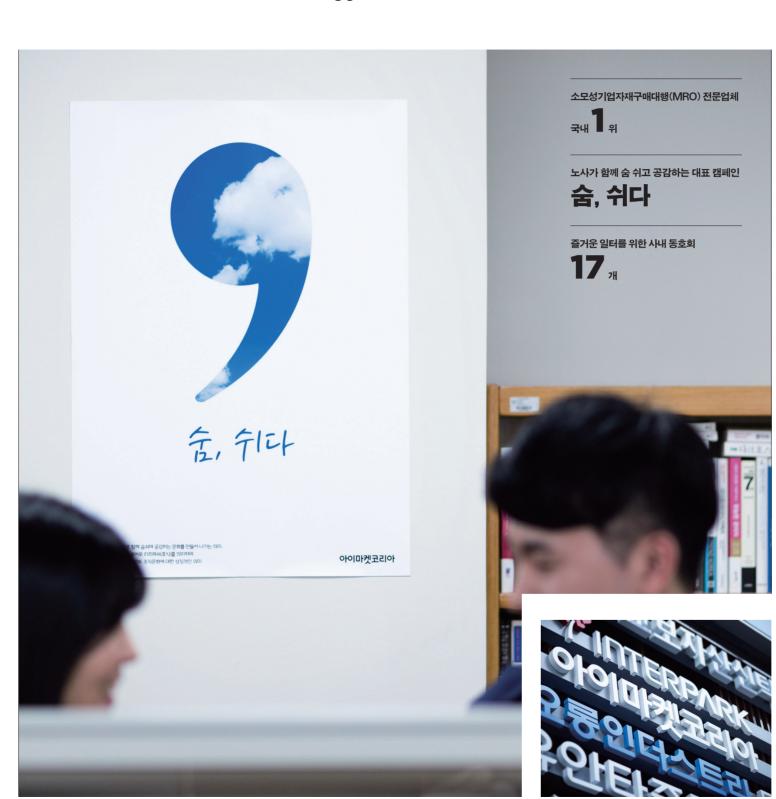
"이런 건 대체 어디서 파는 거지?"

회사 복도계단에 붙일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공장 곳곳에 묻어있는 기름을 닦아주는 흡착재처럼, 회 사에 꼭 필요하긴 한데 어디서 사야 할지 막막한 자 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바로 '아이마켓코리아' 를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내 1위 소모성기업자재구매대행(MRO) 전문업체로, 볼펜이나 A4용지 같은 사무용품은 물론, 중장비·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상의 모든 소모성 자재'를 대신 구매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만능가방 같은 곳인데요.

만능가방 속에는 '직원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특별 한 도구' 도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무려 400만 여개에 달하는 아이템, 아이템의 수만



큼 어마어마한 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워라밸 제도를 시행 중이니 말입니다.
자칫 '숨' 돌릴 틈조차 잃기 쉬운 업무 구조 속에서 직원들의 '쉼'을 앞서 챙긴 회사. "숨 쉴 틈 없다고 숨 못 쉬게 하면 되나요?"라는 반문이 어울리는 회사.
지난해 노사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데에는 단연 '직원을 생각하는 회사의 마음 씀씀이'가 있었습니다.

직원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회사

회사와 직원 사이는 똘똘 뭉친 '독수리오형제' 보다 티격태격하는 '톰과 제리'가 어울립니다.

추구하는 이상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마켓코리아의 노사관계는 따로 떼어 놓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의견을 내면 직원들이 오케이, 직원들이 의견을 내면 회사가 오케이'를 하는 통에 분란이 일어날 틈이 없기 때문이죠. 회사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직원들의 이야기는 사실, 회사가 직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마켓코리아가 인터파크 그룹 계열사로 편입될 때, 진통이 좀 있었어요. 모기업이 달라지는 만큼 정리해고의 위험은 없는지, 임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회사 측에서도 뒤숭숭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불안한 사내 분위기를 빨리 매듭짓기 위해선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







시켜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충접수 채 널'을 만들자는 의견에 노사가 전적으로 동의했고, 그게 지금의 아이마켓코리아를 만들어주었죠."

인사팀 송현철 과장은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회사와 직원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영현황을 요목조목 공개하기 시작한 것도 이즘부터로, 고충접수 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들은 '확실히'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만능가방에 담을 것이 더 많은 회사

심리상담센터 운영, 시차출근제 도입, 인센티브 및 평가제도 개선, 건강검진 병원 확대 등 고충접수 채 널을 통해 접수된 직원들의 의견은 시일을 앞다퉈 개선되거나 새로 생겼습니다.

기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리를 지켜준 직원에 대한 회사의 보답인 건데요. 직장 보육 시설인 아이앤어린이집 운영은 물론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해주세요"라는 작은 목소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숨, 쉬다' 캠페인을 전개해 '함께 숨 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숨, 쉬다 캠페인은 우리 회사의 노사문화를 대표하는 캠페인이에요. CEO 토크콘서트로 회사와 직원의 공감지수를 높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런치 앤 런(Lunch & Learn)에 벤트도 진행하죠. '힘내라 힘'이라는 이벤트도 있

는데요.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동료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벤트 응모에 당첨되면 삼계 탕이 부상으로 주어진다는 말씀!"

우리 회사처럼 좋은 회사가 또 있냐며, 아직 소개하지 못한 이벤트가 많다는 전략영업2팀 목윤지 대리는 다른 회사에선 절대로 없을 특이한 복지제도로 '척추질환 예방의자'를 꼽았습니다. 굳이 앉아서 일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스탠드형 데스크까지마련했다는 아이마켓코리아! 직원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회사가 있고,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직원들이 있는 한, 아이마켓코리아의 만능가방은점점 더 두둑해지지 않을까요.

아이마켓코리아's 한 눈에 보는 노사문회



직원들의 고충 듣는 노사 현의회

너나들이



불통 줄이고

CEO 투크 콘서트



미세먼지 안녕~ 피톤치드 안 부럽다! 부서별 공기청정기 확대 설치



일파 삶의 공존을 위한



맘놓고일할수있 워킹맘!

아이앤어린이집 운영



딱딱한 근무환경을 유연하게~ **캐쥬얼데이 확대**



거북목, 디스크 사전에 완벽 차단! 청촌보증의자 도임



이토록 아름다운 폐지를 보셨습니까?

더불어 세상

커다란 리어카, 구부러진 허리, 위험한 차도 위를 힘겹게 걷는 느린 걸음.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의 단상입니다

하루 종일 모아봐야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몇천 원.

그런데 한 청년이 어르신들이 모은 폐지를

시중가보다 6배 더 비싼 가격에 삽니다.

다정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의 시작입니다.



어르신, 폐박스 저한테 파세요. 제가 더 비싸게 살게요

선의인줄 알았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속고 마는 각박 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는 말을 허투 루들은 제 탓을 하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할 때도 있죠. 그런데 '폐박스 비싸게 삽니다'라는 문구를 사업장 밖에 내걸고, 그 약속을 진짜로 지키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가 그 주인공 입니다.

"2013년 이른 봄날이었어요. 수레에 폐지를 가득 실은 채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할머니를 보게 됐죠. 그냥 오르기에도 힘들 법한 언덕이라 지체 없이 수 레를 밀어드렸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서 폐지 줍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어 요. 폐지를 종일 주운 노동의 값이 겨우 몇천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그랬지만,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폐지 무게보다 더 무 겁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죠."

'어르신들을 도와 폐지를 줍고 말벗이 되어드려야 겠다'는 결심이 선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것만으로는 그 어떤 도움도 되 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폐지는 누구나 주울 수 있는데 유독 폐지 줍는 노 인들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뭘까, 궁금해졌어요. 생활고 때문에 혹은 소일거리 삼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사실 진짜 이유는 노인 일자리 부족에 있었어요. 일자리가 부족한 거라면, 일자리를 만들 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노인들이 주운 폐지를 비싼 값에 사들이고, 폐지로 만든 캔버스에 작가들의 그림을 덧입혀 되파는 사업 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수익금은 당초 계획대로



독거노인의 자립을 돕거나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러블리페이퍼의 풀네임은 'lovely paper(사랑스러운 종이)'가 아닌, Love와 Recycle(재활용)의 준말 'Love Re Paper'입니다. 종이를 재활용해사랑을 전한다는 뜻이 담겨있죠.

폐지 줍는 노인 아니고요.

'자원재생활동가'입니다

어르신들이 수집하는 폐지의 무게는 1명당 연간 9톤에 달합니다. 나무로 환산하면 158그루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러블리페이퍼가 하는 일은 단순히 폐지를 재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노동의 가치'가 서려있는 것이죠.

러블리페이퍼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자원재생활동가' 라고 칭하는 이유입니다.

자원재생활동가는 크게 두 가지 역할로 나뉩니다. 폐박스를 공급해주는 역할과 폐박스에 천을 덧입 혀 캔버스로 만드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소풍 오는 기분이지. 같이 즐 겁게 일할 동무들도 있으니 을매나 신나고 좋은지 몰라요."

폐박스를 비싸게 산다기에 궁금해서 들어왔다가

직원이 됐다는 OO 할머니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한 공간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맺어나간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환골탈태한 캔버스는 재능기부로 함께하는 300여 명 작가들의 그림으로 채워집니다. 자원재생활동 가들의 든든한 조력자인 셈인데요. 어르신들의 손이 바빠질수록, 작가들의 손이 바빠질수록 불어나는 판매 수익금은 또 다른 어르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꿈이요?

멋지게 망하는 거예요

폐박스를 이용해 캔버스를 만들고 여기에 그림을 그려 되파는, 어찌 보면 단순한 사업구조이지만 러 블리페이퍼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은 쉬지 않고 상향곡선을 그리는 중입니다.

'폐박스를 이용해 캔버스 만드는 과정을 알려 달라'는 수업 요청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강의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작품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금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이 보장된 따뜻한 사 회를 만들고 싶다는 기우진 대표. 그런데 그가 돌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꿈은 러블리페이퍼가 멋지게 망하는 거예요." 더 많은 노인들과 함께하고 싶다던 그가, 언젠가는 '더불어 사는 세상'의 가치를 함께 배워나가는 학교 도 세우고 싶다는 그가, 심지어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인식개선활동도 부지런히 하고 있다는 그가, 결국에는 러블리페이퍼가 멋지게 망했으면 좋겠다니 쉬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기우진 대표는 그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러블리페이퍼가 필요 없는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 이잖아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 진 세상일 테니까요. 어르신들이 그 어떤 불편한 시 선없이 자원재생활동가로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 으면 좋겠어요. 러블리페이퍼가 망하는 그 날까지, 힘써보려고요."

회사가 망해도 좋다,는 그의 말에서 어쩐지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러블리페이퍼, 300여 명의 작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우진 대표

2016년 재능기부자를 모집했을 때가 장 먼저 참여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작가님이 있어요. 꽃비(고천성)

작가님인데요. 아름다운 글씨에 담긴 묵직하지만 따뜻한 메시지를 제가 참 많이 좋아합니다.



오현회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러블리페 이퍼에 꾸준히 재능기부를 해주고 계 신데요. 그중 정다올 작가님에게 고마

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밝은 색채로 그린 작가님의 그림을 보고 있자면, 제 마음이 다 힐링되는 것 같아요.



반서미

김선아 작가님은 긍정적인 기운이 마구 넘치는 분이에요. 작품에도 그 기운이 넘쳐납니다. 무엇보다 작가님 작품

의 글귀는 반짝이는 보물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감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고혜병

저는 유림 작가님을 참 좋아해요. 청각 장애인 작가인데요. 분기마다 꾸준히 작품을 보내주고 계세요. 작품에는 세

상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선이 가득 담겨있죠.



양성민

물란 작가님은 캘리그라피 재능기부를 해주고 계세요. 오히려 작가님 본인이 재능기부를 하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뮬란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밝고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희망 일터 **기술이 힘!**

45

특수용접을 배운 후,

내 인생이 특별해졌다!

친근하게 느껴지는 단어는 아니지만 세상에 용접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철강 등 금속재료 뿐 아니라 넓은 의미로 플라스틱, 유리 등을 포함한 모든 소재에 '접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가 신중년 특화과정으로 마련한 '특수용접' 수업을 미리 들어봤습니다.



글 임지영 | **사진** 박찬혁

44



나이·성별 제한 사라진 특수용접, 남인천캠퍼스에서 배워요!

용접은 다양한 재료를 접합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산 업 분야 또한 다양합니다. 기술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취업을 계획하는 중장년층에게 안성맞춤이죠. 전국 한국폴리텍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남인천캠퍼스가 '특수용접'에 주목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인천캠퍼스는 신중년을 위한 특수용접 과정 외에도 1년제 전문기술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용접이 한때 여성의 불모지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안전장비와 보호구가 좋아지고, 설비 또한 자동화되면서 수강신청을 하는 여성들도 눈에 띄게 많아지고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항공MRO 특화캠퍼스로 변화를 꿈꾸는 남인천캠퍼스는 2년제 학위과정, 1년제 전문기술과정, 중장년 · 여성재취업 과정 등의 여러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용접과 일반용접, 이렇게 달라요!

일반용접은 가스용접, 전기용접 및 전기저항용접 등 철 위주의 용접에 주로 쓰이지만, 특수용접은 이들뿐 아니라 알루미늄, 티타늄, 각종 합금 등 다양한 재료를 접합하는 용접법입니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가볍고 단단한 신소재가 개발됨에따라 이들 재료들을 견고하게 붙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분야는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자동차, 조선, 기계 제작분야는 물론, 수력·화력·원자력 등의 발전설비 분야, 각종 플랜트 분야 등에서 활용됩니다.





특수용접 교육과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기계제도 및 CAD 알기

용접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용접을 익히기 전, 도면을 해독하고 CAD를 활 용해 도면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능력을 습득합니다.

② 피복금속아크용접 (SMAW) 이론 및 실습

특수용접을 배우기 전, 용접의 기본원리를 알아봅니다. 접합이 필요한 부위와 용접봉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접합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용접법인데요. 용접장비가 간단해 손쉽 게 용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간단히 '전기용접' 또는 '아크용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③ CO2용접 이론 및 실습

 CO_2 가스를 활용한 반자동 용접으로 중장비의 바디나 조선 분야에서 두꺼운 연강 재료를 용접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용입(표면에서부터 접합이 된 곳까지의 깊이)이 깊기 때문 에 주로 두꺼운 후판의 고능률 용접에 이용되기도 하는 대 표적인 특수용접법입니다.

4 가스텅스텐이크용접 (GTAW) 이론 및 실습

텅스텐이라는 전극봉을 이용하는 용접 공법으로, 용접기 조정이 까다로워 어려운 용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및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합금 등의 비철 금속의 박판을 용접하는데 사용됩니다.

⑤ 절단 및 배관실습

용접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자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절단'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배관 작업에서 용접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배관실습을 통해 에너지관리, 시설관리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습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특수용접과 김석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역게 되나요 독수용접 교육과정의 소요기간은 어

4개월 560시간 과정으로 전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개설됩니다. 한 기수당 27명을 선발하게 되며, 용접과 관련 없는 직종에서 일하신 분들도 누구나 제한 없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강생 90%가 관련 직종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취업 가능한 산업군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용접사는 각 산업분야에서 높은 니 즈를 보이는 직업군인만큼 취업의 문이 훨씬 낮습니 다. 특히 최근에는 조선산업 분야의 LNG선 멤브레 인 용접, 원자력 및 발전설비 분야의 파이프 용접, 항 공MRO 분야의 항공정비 용접 등에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특수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 용접 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등의 자격 증을 취득하면 취업하는 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중년층의 경우, 취업의 제한이 있지는 않을까요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서는 현장실무 중심의 실습을 통해 취업 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 건설, 토목, 플랜트, 조선, 항공, 발전설비 등 각 기업체에 맞는 용접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취업의 제한도 크게 없습니다. 꼭 용접사가 아니더라도 배관실습을 통해 시설관리나 설비보전 등의 분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남인천캠퍼스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용접은 이론만큼이나 실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남인천캠퍼스는 특수용접에 필수적인 특수용접실습 장, 피복아크용접실습장, 자동화용접실습장, 비피괴 시험실습장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CO₂용접기,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 등 57종 725점을 보유하고 있어,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충 분한 실습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중년 과정을 수강한 학생 중 60%가 취업에 성공한 바 있 습니다. 용접공으로서 제2의 인생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뚝딱뚝딱, 목공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는 '나무는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술'이 관건이겠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목공의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받을 수 있답니다!



"하나의 건물을 짓는 데에는 목재, 철재, 시멘트 등 다양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목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때문에 목공 전문가는 여전히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4차 산업의 발달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는 현대시대에서 '사라지지 않을'

유망직종 중 하나인 셈이죠. 특히 요즘은 실내 인테리어의 원재료를 '나무'로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 목공 전문가의 영역이 더욱 방대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목 가구 제조 현장에서도 실력 있는 기술자를 꾸준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목공 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인 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시죠!"





최고의 목수가 되는 길, 기본기를 닦고 있습니다

김주호(수강생, 28살)

1년 동안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목수로 일하는 분을 알게 됐어요. 거친 목재를 능숙하게 다루며 공간을 만드는 모습이 무척 멋져 보였습니다. 호주에서는 목수라는 직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거든요. '언젠가 꼭 한번 배워봐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귀국 후 바로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덕분에요!

역시 목공의 매력은 남달랐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던 설계도를 현실화시킬 때 느끼는 쾌감이란 정말 어마어마하죠. 더불어 나무에서 퍼지는 항과 부드러운 감촉은 목공의 최고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장차 멋진 공간을 만드는 목수가 되려고 합니다. 최고의 목수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기대해주세요!

목공인테리어 사무실을 계획 중입니다!

김학채(수강생, 57세)



나이가 꽤 있는지라 선뜻 새로운 것에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면 실업이나 재직, 자영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기를 내 평소 관심 있던 목공인테리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2의인생을 설계할 만큼 기대 이상의 만족을 얻고 있답니다!직접 경험해보니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저희 집 내부 구조를 직접 수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저의 또 다른적성과 흥미를 알게 된 만큼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는목공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려볼까 해요. 인생은 육십부터니까요.

최고의 목수와 목공인테리어 사무실 개업을 꿈꾸는 두 명의 수강생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현대실내건축기술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친의 뒤를 이어 평생을 건축 목공 분야에 종사한 김상철 원장이 이끄는 곳인데요.

과정 수료 후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어도 어색함이 없을 만큼,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강점이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목공인테리어 교육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볼까요?



안전 교육

목공인테리어에 있어 안전교육은 기장 우선시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톱, 끌, 대패 등 다양한 목공장비가 사용되는 만큼,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목공인테리어 작업 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를 알아보고, 장비별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도면 읽기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을 통해 구조물의 형태를 파악해보

는 시간입니다. 도면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시 공의 순서를 제대로 계획할 수 있는 만큼, 도면 읽기는 시공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도구의 역할 배우기

목공기술을 익히려면 각 도구가 가 진 고유의 역할과 사용법을 알아야

겠죠? 톱, 끌, 대패, 드릴, 커팅기, 타카 등의 역할 과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구와 친해지는 시간만 3일정도 소요됩니다.



시공실습

벽, 천장, 바닥, 창호는 물론 계단 시 공까지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입니

다. 벽이나 창호에 비해 계단에 사용되는 목재는 더 단단한 재질을 사용해야 안전하겠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목재의 종류 를 알아보고, 시공을 반복 연습함으로써 실전 노 하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목공기술, 이 정도는 기본이죠!

김상철 원장



대류현상 줄이려면 천장에 작은 창문 내세요

목조주택은 단열이 잘 되어 사시사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열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아 위 공기가 더워지는 대류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층 구조물의 경우라면 천장 시공 시 작은 창문을 두는 것이 노하우에요!

바닥 시공 시, 소음은 이렇게 잡아요

목조주택의 취약점을 꼽으라면 '소음' 인데요. 바닥에 설치된 목재 위에 3인치 이상의 공간을 두고 목재를 한 겹더 쌓으면, 공기층이 진동을 줄여주는 쿠션 역할을 한답니다. 목재 사이사이 빈틈을 꼼꼼히 메꿔주는 것도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에요.

목공기술은 건축사, 건설 엔지니어링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 관련 공공기관, 목공 전문 가구업체,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으로 취업도 가능하죠.

자세한 내용은 현대실내건축기술학원 (http://목공학원.com 또는 02-395-0700)에 문의해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Point



누구나 신청 가능

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 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유효기간 5년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 없이 5년간 사용 가능



훈련비 지원

저소득층 500만 원, 국가기간 전 략산업 직종 훈련 전액 지원



개인맞춤 수강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 련을 선택 수강



HRD-Net 실시간 확인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 실 시간 확인



부담 비율 동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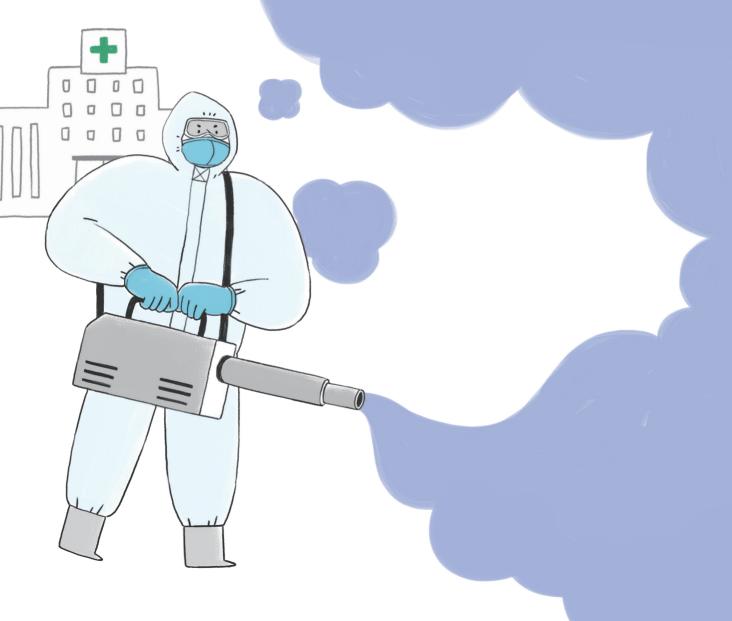
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자부담 비율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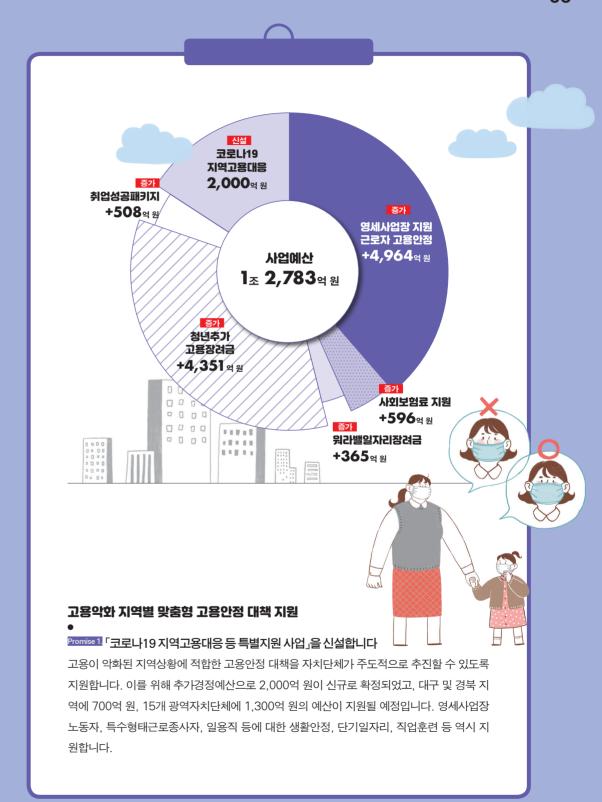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기능합니다. (단, 훈련과정 수강 신청의 경우 140시간 이상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책이슈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6개 사업, 1조 2,783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Promise 2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조(4개월) 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확정된 예산은 총 2조 6,611억 원으로, 10인 미만 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 10인 이상 기업은 4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 외, 5인 미만일 경우에는 11만 원 지원이었던 것을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5~9인일 경우에는 9만 원 지원을 16만 원, 10인 이상일 경우 9만 원 지원을 13만 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Promise 3.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확대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 지원인 원을 3만 명 확대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1조 2,086억 원으로, 이는 본예산 1조 1,490억 원에서 596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긴급 가정돌봄 지원 강화

Promise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및 지원수준을 강화합니다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 원이 기존 7,500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되고, 지원 수준 역시 강화됩니다.

	현재	추경
임금감소 보전금	24~40만 원	40~60만 원
간접노무비	20만 원	40만 원
대체인력채용 지원	30~60만 원	30~80만 원

^{* 〈}본예산〉144억 원, 7,500명—〈추경〉508억 원(+365억 원), 2만 명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Promise 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 재도입합니다.

2,317억 원이었던 본예산에서 508억 원이 추가돼 최종 추가경정예산이 2,82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5만 명에서 2만 명 확대된 7만 명에게 지원하고, 청년의 경우 기존보다 3만 명 확대된 8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2020년 / 2,771억 원)을 일부 전용하여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고,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상호의무협약 체결로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점검을 거쳐수당을 지급합니다.

Promise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올해 목표인원 29만 명(신규 9만+기존 20만)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 금 필요 소요를 반영합니다.

9,909억 원이었던 본예산에서 4,351억 원이 추가돼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26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 • •

News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장관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를 인기받은 ㈜메디아나(강원 원주 소재)를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듣고 고생하는 임직원(상시근로자 189명)들을 위해 간식(인근 재래시장에서 구매)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메디아나는 의료·정밀·과학기기제조업체로서 최근 코로나19 진단·치료를 위한산소포화도 측정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인기받은 업체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위한 방역·치료, 마스크 제조 및 방역용품의 신

속한 공급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인가 조치하고 있다"면서, "임직원분들이 각자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연장근로를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장방문에 이어 인근 원주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기업지원업무 담당직원들도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지원금 신청과 제도내용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 연일 고생이 많다"며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활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와 노동자분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2

장기화된 훈련중단, 고용노동부가 짐을 나눕니다



지난 3월 18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는 전국 5개 지방고용노동청 내 영상회의 장비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기관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임서정 차관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직업훈련기관 대표가 참석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훈련생과 훈련기관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대구·경북지역에 국한했던 훈련중단 권고를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임서정 차관은 "빠른 시일 내 훈련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훈련기관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훈련비 선지급 확대 ② 시설·장비의 대부원금 상환 유예 ③ 원격훈련 인정 등 유연한 운영 허용입니다. 훈련생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②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면제 ③ 훈련상담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259만 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 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만 8천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 확대 운영됩니다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후 2천 9백 여 건의 진정 사건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2개소를 시범운영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국 8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민간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 담센터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화상담은 물론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 니다. 전화상담은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곤 상

시 운영되며 고용노동부는 향후 각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번호를 개설해 전화상담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한편,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와 연계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9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이 사업 첫해인 2014년 1천 897개소에서 2019년 1만 5천 개소로 크게 늘었고, 참여자도 9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으로, 지난해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능력개발방법으로 평가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대한민국 정부혁신사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학습병행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좋아진 것은 물론, 기업 역시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과 배움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기업의 핵심인재로 거듭날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올해 8월 28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부여 등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에 3월 31일부터는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

아휴직 중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한편,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하는 기간 중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62	
박새로이는	

'새도이는 -의 앞에 당당합니다)0 음식이 경제를 만났다

를 만났다?! 비즈니스 이메일, 지사용어 제대로 쓰고 계심)

68

70

스 이메일, 이건 너무하다 싶을 다 쓰고계십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74

금테 두른 다육이로 오마아! 내 누

76

내눈 춘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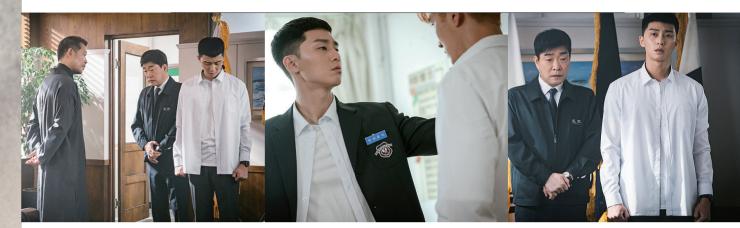
애독자 모의고시

박새로이는 불의 앞에 당당합니다

좋게 좋게 넘기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 박새로이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댑니다. 불의 앞에선 콩알만큼의 타협도 없는 청년. 그래서 "사장님이 박새로이였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쏟아지는지도 모릅니다.



"무릎 꿇고 빌면 용서를 해주지. 그렇지 않다면 각오해야 할게야."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 박새로이는 믿지 못할 광경을 목도합니다. 교실 뒤편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모두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었죠. 아무도 말리지 않는 이상한 상황 속에서 박새로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섭니다. 힘없는 친구에게 날아가는 나쁜 주먹을 여유롭게 막아내는 새로이! 하지만이 찰나의 순간이 그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를 해주지."

친구를 괴롭히던 아이는 누구나 알만한 대형 프랜차이즈 장회장의 아들입니다. 반면, 새로이는 20년간 장회장의 성공을 도왔던 평범한 직장인의 평범한 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새로이는 무릎을 꿇는 대신 '또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친구를 도왔을 것'이라는 소신을 지킵니다. 소신을 지킨 결과는 참담합니다. 퇴학은 물론 아빠마저도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니 말입니다. 부자가 나란히 설 곳을 잃은 저녁. 새로이는 자신 때문에 부당해고까지 당한 아버지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소신을 지킨 네가 자 랑스럽다'며 아들에게 소주 한 잔을 권합니다. 달디 단, 그러나 앞으로는 마냥 달지만은 않을 쓰디쓴 인 생 소주입니다.

의 여기서 잠깐! 부당해고 당했다면 구제신청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취하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 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3개월 이내에 필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복귀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금전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 너 아프리카 사람인거"

이들의 악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던 장회장의 아들 '근원(안보현 분)'이 이번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뺑소니 가해자가 된 것인데요.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새로이 아빠입니다.

사고의 진범이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새로이는 결국 또 다시 주먹을 쓰게 되는데요. 장회장은 이번에도 '무릎 꿇을 것'을 요구하지만 새로이는 굽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소신을 택한 새로이! 하지만 그 결과는 훨씬 더 잔혹합니다. 대쪽 같은 새로이의 태도에 심기가 불편했던 장회장이 살인미수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씌어 징역형을 받도록 손을 쓴 것이죠.

험난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펼쳐진 새로이. 하지만 힘든 시간 속에서도 꽃은 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가를 알아본 귀인들이 하나 둘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죠. 덕분에 퇴소 후 고작 7년 만에 서울의 한복판 '이타원'에 포차를 차릴 수 있었던 새로이는 다재다능한 매니저 조이서(김다미 분)까지 영입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듯, 인기가 많아진 새로이의 포차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깐깐한 매니저 이서의 눈에 들어온 최종 합격자는 토니입니다. 이태원에 외국인이 많으니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였지만, 사실 그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한국인이었죠. 영어 못하는 게 알려지면 해고될 위기에 처하는 인물이지만, 정작 토니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을 외국인으로 보는 이서의 '불편한 시선'과 '칼날' 같은 말'이 그것이었죠.

(·) 여기서 잠깐! 외국인 차별을 멈춰주세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 가운데 68.4%가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100만 명 중 무려 7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편견 앞에 눈물을 훔친 셈입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이 겪고 있는 고충 해결을 위해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 중입니다. 법으로 정해야만 차별하지 않는 사회라면 너무 슬픈 일 아닐까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관련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차별을 멈추고 능력을 보면, 국경을 넘는 업무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한국사람 맞아요!

"나도 이제 욕심내면서 살려고. 그럼 나 쳐다봐줄 거잖아."



새로이와 함께하는 동료 직원들 가운데는 악연으로 얼룩진 장회장의 둘째 아들 '근수(김동희 분)'도 있습니다. 형 '근원'의 이복동생이기도 한데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란 근수는 자신의 가족과는 달리 마음 따뜻한 새로이를 무척 신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짝사랑하는 매니저 이수가 자신에게는 도통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이서는 새로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폭발한 근수는 결국 포차를 떠나 장회장의 계보를 잇기로 합니다. 승승장구하는 새로이에 맞서, 권력을 쥐게 되면 이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어쩌면 이 부분이 현실과는 갭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사랑이 권력과 동등한 관계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사랑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관둘 수도 없는 게 현대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끼던 동생에서 이제는 새로운 적으로 등극해버린 근수! 계속되는 난관 앞에 새로이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 잠깐 근수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한 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간혹, 그간 함께 일한 '정'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주가 있는데요.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배액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 유념해야 합니다.

시사백과

음식이 경제를 만났다?! 맛있는 경제 시사용어

듣기 전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어려운 경제용어! 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친숙한 용어들도 많답니다. 군침 싹 도는 시시용어를 만나볼게요.



커피 값 아껴서 부자 됩시다 카페라떼 효과

하루에 카페라테 한 잔의 돈을 절약해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처럼 작은 돈이라도 장기간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 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미국의 재테크 전문가 데이비 드 바흐(David Bach)가 쓴 〈자동적 백만장자〉라는 책 에서 처음 소개돼 알려졌다고 하죠. 우리나라 직장인 한 달 평균 커피 값은 12만 원! 결국 일 년에 15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커피 값으로 소비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준하는 몸값을 자랑하는 담배값까지 아낀다면, 데이비 드 바흐의 말처럼 정말로 '자동적 부자'가 될지도 모르 겠습니다.





아체 같은 손님들, 정말 미워요 체리피커

예쁜 케이크를 샀는데, 상대방이 케이크 위에 올려진 체 리만 쏙쏙 골라 먹는다면 정말 얄미울 것 같은데요. 체 리피커란 이처럼 제공하는 서비스만 누리고, 매출 증가 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기 업 입장에서는 '얌체 고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요. 대형마트에 가서 시식용 소고기만 열심히 먹고. 정 작 제품은 사지 않는 고객들도 체리피커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시식용이라지만, 다음 손님을 위해 무리한 시식 은삼가는게 좋겠죠?

정말로 결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레몬 마켓

품질이 낮은 상품이 유통되는 시장을 지칭하는 말입니 다. 제품 정보를 잘 모르거나, 행여 '속아서 살까봐' 싼 값만 지불하려는 소비자가 늘다 보니, 판매자 역시 가 격에 맞추기 위해 결함이 있는 줄 알면서도 상품을 판 매하는 현상인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중고차 시장입니다. '레몬'이란 단어가 붙게 된 데에는 미국 속 어로 레몬이 불량품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보 여서 한 입 깨물었는데 예상과 달리 눈살이 찌푸러질 만큼 시큼한 맛이 감돈다면, 당연히 속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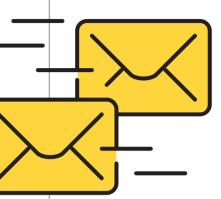
내 생에 양보는 없다! 치킨게임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 닫는 현상을 말합니다. '치킨' 이라는 명칭은 충돌을 불사 하고 서로를 향해 차를 몰며 돌진하던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의 게임에서 유래했는데요. 충돌을 염려해 핸 들을 먼저 꺾은 쪽이 치킨, 그러니까 겁쟁이가 되는 게임 입니다. 치킨게임은 제임스 딘 주연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도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2010년,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이 치열한 치킨게 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 한 가격인하에 나선 것이죠. 그러나 이 게임의 승자는 막 강한 현금 보유력을 자랑했던 삼성전자에게 돌아갔습니 다. '이대로 가다간 파산하겠다' 싶은 다른 기업들이 줄 줄이 항복하면서 치킨게임의 핸들을 꺾은 것이죠.



각국의 통화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살피기 위해 사용되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의 '빅맥' 인데요. 햄버 거의 버거(Burger)와 이코노믹의 노믹(nomic)을 따 '버 거노믹'이라고도 부릅니다. 빅맥이 통화가치 수준을 점치 는 기준이 된 데에는, 120개 국가의 거의 모든 맥도날드 매장에서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 표준화된 사이즈와 구성 으로 빅맥을 만들기 때문에 비교가 쉬운 까닭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5.67달러(한화 7.110원)를 주고 빅맥을 먹던 사람이 한국에서는 4.500원만 낸다면 한국의 통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http://www.labor21.com



비즈니스 이메일,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이메일은 모든 비즈니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수단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마다 이메일 작성 방식이 각양각색이니 말입니다.

커닝은 최고의 가이드라인!

'고작 이메일인데 격식 차릴 필요가 있을까' 싶겠지만,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 대하듯' 메일을 발송하면 곤란합니다.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메일은 내가 속한 회 사의 품격을 실축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이메일 잘 쓰는 첫 번째 요령은 '상급자의 이메 일 양식 훑어보기 입니다. 회사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급자는 아무래도 회사가 추 구하는 바에 가장 가까운 양식을 차용하고 있겠죠? 커닝은 때때로 최고의 가이드라인이 된답니다!

제목은 30자를 넘지 않게

제목은 이메일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〇〇과장님, 관련자료 보내드립니다'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목에는 보내는 사람의 소 속과 용건만 간단히 기입하세요. 그래야 메일을 받아보는 사람이 한눈에 파악하기 쉽습 니다. 소속은 대괄호 안에, 용건은 괄호 밖에 기입해야 파악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말이죠.

[월간내일 편집실]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 가이드라인

인사 건너뛰지 마세요

자주 메일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해도 인사를 건너뛰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〇〇과 장님. 월간내일 편집실 홍미인 대리입니다" 정도로 상대방의 이름과 직위를 언급하여 간 단히 인사하되, 인사말은 30자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미사여구로 장식된 인사는 용 건의 중요성을 희석시킬 수 있어요!

Step.04 내용은 핵심요점을 먼저 적어주세요

용건을 적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요점 콕 짚어주기' 입니다.

메일의 용건을 한 문장으로 기입해 상대방이 요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 이 긴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에 강조 처리를 하거나 글씨의 크기를 달리하는 것도 좋습니 다. 용건이 끝나면 끝인사를 적어 용건이 끝났음을 알리고, 끝인사는 듣는 사람에 따라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수고하세요' 보다는 '감사합니다'가 좋습니다.

Step.os

대용량 첨부파일은 꼭 압축해서 보내요

첨부파일을 일일이 열어보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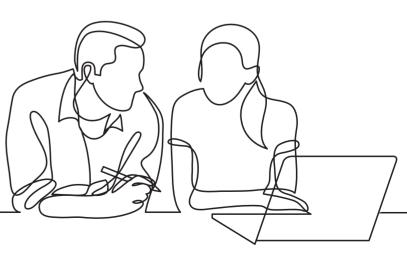
5개 이상의 첨부파일은 꼭 압축시켜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첨부파 일이 많아질수록 '파일정리'의 수고로움을 당연히 여기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정리 라고 해봐야 첨부파일명에 번호를 붙이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1번 파일을 보시면 요~" 등처럼 대화하기도 훨씬 편리해지겠죠?

Step.06

전송은 예약제로~

아주 중요한 문건일수록 '즉시 전송'을 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수정해야 할 내용이 생 겼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전송한 내용이 잘못됐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다시 쓰 고 싶지 않다면 '전송은 예약제로!' 꼭 기억하세요.







Q&A

이건 너무하다 싶을 땐,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셔야죠!

욕심 부리기보단 어느 정도 손해 보며 사는 것이 현명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 하잖아!' 싶을 땐 목소리를 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억울한 직장인이 되지 않기 위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Q1

회사가 어려워져서 벌써 3개월째 임금이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직을 해야겠다 싶어 사직서를 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했더니, 사장님이 역정을 냅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괘씸하게 사직서까지 쓰더니 실업급여까지 받으려 고 하냐면서요. 임금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낸 건데, 말문이 턱 막힙니다.

A_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 당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합니다. 즉 사례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러나 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 지급,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라면 ① 3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사직서에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위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③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일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요. 문제는 산재휴가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직속 상사가 빨리 출근하라고 재촉전화를 해옵니다. 일이 많은데 제가 쉬고 있으니 문제가 많다면서요. 다친 것도 서러운데, 마음의 상처가 더 크네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_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곤란한 근로자는 동 요양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나 상사의 일방적 지시로 근로를 강요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회사는 산재보상으로 휴업한 기관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① 회사가 출근을 강제할 수 없다하더라도 관계 측면에서 부드럽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하여 '의학적 소견상 정상 근로가 곤란하고 무리한 근로 시에는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명시한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해 정상출근의 어려움을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② 치료종결 후에는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정신적 질병이 유발된 경우에는 추가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추가 승인 시에는 계속 요양할 수 있습니다. ③ 요양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지원하며, 근로자의 과실 등 여부에 따라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각종 폭언과 성희롱에 정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각종 폭언과 성희롱을 이유로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 반응이 영 마뜩치 않네요. 일도 바쁜데, 휴직을 내면 어떡하냐며 차라리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제 입장도 이해받고 싶은데… 이 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_ 상사나 동료,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① 콜센터의 특성상 모든 대화내용이 녹음된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는 회사에게 고객에 의한 성희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동 조사기간 및 성희롱 인정 시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③ 한편,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말고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폭언,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정신질병(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우울증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따라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전 직장을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장님이 정말로 돈이 없대요.

퇴사한지 두 달이 지나도록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요. 문제는 사장님이 정말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이있는 직원들도 정리하고, 폐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제 월급도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스트레스가 정말 심합니다.

A_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형사적 처벌일 뿐,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회사가 임금지불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폐업이나 파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채권 보장법상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체당금은 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나 자진폐업 등 사실상 도산에 해당할 경우 3개월의 임금과 3년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체당금은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사업주가 폐업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 ① 고용노동부에 파산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나 폐업에 의한 사실상 도산 인정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률적 요건 및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필요가 있습니다. ②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이상 임금체불로 퇴사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체당금은 체불내역 확인 절차, 사실상 도산 등 인정 절차, 체당금 신청 절차를 모두 거 처야 하며, 실제 수령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회사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힐링 일터 저녁이 있는 삶 글 편집실 74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반겨주는 이 하나 없는 적막한 분위기라면 눈물이 찔끔 납니다. 나 좋자고 덜컥 반려동물을 키울 수도 없죠. 1인 가구를 위한, 잘만 키우면 열 효자 부럽지 않은 똑똑한 '다육이'를 소개합니다.

금테 두른 다육이로

돈좀 만져 볼까나

하고 많은 식물 중에 왜 '다육이'일까요

그 많은 식물 가운데 굳이 콕 집어서 '다육이'를 추천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 유가 있습니다. 잘만 키우면, 적게는 수백 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대를 호가 하는 재테크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다육이는 키울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데 요. 1~2천 원짜리 다육이도 1년간 잘 키우면 몸값이 무려 10배나 높아진답 니다. 실제로 식물 재테크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육 이의 몸값은 번식이 어렵거나 키우기 까다로울수록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이쯤 되면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손사래를 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 다육이를 잘 키우는 방법이 겨우 '물 안주기'라면 믿어지시나요?

물은일 년에 두어 번만으로도 충분해요

니다

사막이나 높은 산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지역이 원산지인 이들은 이미 잎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을 조금만 줘 도 금방 물러버리고 말죠.

의외로 다육이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패의 주원인

햇살만 보여주면 알아서 잘 커요

물 안줘도 되고, 신경 안 쓰면 오히려 더 잘 자라는 다육이는 1인 가구가 키우기에 안성맞춤인데요. 다만, 짱짱한 '햇살'은 늘 유지해줘야 합니 다. 원산지가 사막인 만큼, 햇살이 없으면 상태가 금방 안 좋아지기 때 문이죠. 간혹 "햇살도 보여줬는데 다육이가 죽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도 계신데요. 베란다 창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답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은 직사광선을 보게 해주세요.

TIP.

몸값 비싼 다육이를 소개할게요!

재테크에 용이한 값비싼 다육이는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이름에 '금' 자가 들어간 다육이를 고르면 기대해볼 만합니다. 금 테 두른 다육이, 개봉박두!



① 방울복랑금

몸값 비싸기로 유명하지만, 포트에 담긴 아이는 1~2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답 니다. 햇빛을 골고루 쬐서 균형을 이룬 모양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데요. 잎에 금색이 도는 이유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 긴 변종이기 때문이랍니다. 인위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색이라 재테크용으로 인 기가 높습니다.



② 천대전송금

멕시코가 고향으로 '금' 류의 다른 다육 이들처럼 비싼 몸값을 자랑합니다. 하지 만 어린 천대전송금은 1~2천 원이면 구입이 가능해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잘 키운 천대전송금이 비싼 몸값을 자랑 하는 이유는 '더디 자라는 생장속도' 때 문입니다. 아주 느긋한 마음을 준비해야



멕시코 혹은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다 육이입니다. 여제금 역시 돌연변이에 의 해 잎이 금빛을 띄는데요.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2만 원 후반대 로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잘만 키우면 몇 십만 원대로 몸값이 뛴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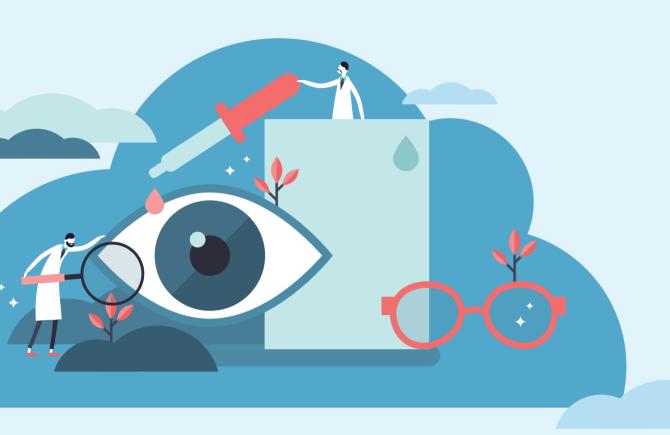


다육이를 잘 키우려면 '가뭄에 콩 나듯' 물을 주는 것이 비결 아닌 비결입

이 바로 '물을 많이 줘서'라는 사실! 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다육 이는 일 년에 두어 번 정도 물을 준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물이 부족 하면 다육이가 스스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통통했던 잎에 자글 자글 주름이 갔다면 '목이 말라요'라는 뜻이랍니다. 이럴 땐 분무기로 물을 흠뻑 주세요.









^{옴마야!} 내 눈!

꽃망울이 팡팡 터지는 기분 좋은 봄이건만 안과를 찾는 사람들은 부쩍 늘어납니다. 안 그래도 전자파에 노출된 눈이 꽃가루를 만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건데요. 눈 건강 지키는 3가지 기본 수칙을 익혀봅니다.

수칙 하나.

건조한 실내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안구건조증은 눈물분비량은 정상인데 반해 눈물의 증발속도가 빠를 때 발생합니다. 난방시설이 잘 갖춰진 빌딩이나 밀폐된 사무실은 습도 저하와 환기 부족으로 눈 건강에 최악인데요. 눈물의 증발속도를 늦추기 위해선 실내 습도를 50~6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실내 습도를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면, 소형 가습기라도 책상 위에 올려두실 것을 권합니다. 체내의 수분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지가 많아도 안구에 이물질이 끼어 눈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평소에 주변 청소를깨끗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내 환기는 필수입니다!

수칙 두울,

눈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 기르기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는 경우가 참 많은 데요. 퇴근 후 스마트기기까지 사용한다면 안구건조증이 악화될 수 밖에 없겠죠? 컴퓨터 이용시간을 줄이기 어렵다면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을 줄이고, 사용 중간 중간 눈을 감거나 깜빡거려 눈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깜빡거리는 것만 해도 눈이 촉촉해지고 생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규칙적으로 눈에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열기가 눈 꺼풀의 기름샘에서 분비되는 기름과 단백질을 녹여 눈물샘의 기능을 활발히 해주기 때문이죠.

수칙 세엣.

인공눈물은 늘 주머니 속에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도 안구건조증은 재발이 쉬운 질환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인공눈물을 필수품처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 은데요. 조금이라도 이물감이 있거나 가벼운 충혈이 있을 때 넣어 주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공눈물과 식 염수 사용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간혹 소금물이나 식염수 로 눈을 세척하는 경우가 있지만 눈 세척은 이물질은 물론 안구에 있는 눈물까지 제거해버립니다. 눈이 더 뻑뻑해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죠.



77

안구건조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Q_인공눈물을 자주 넣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A_인공눈물은 눈물의 증발을 방지해줘 기본적으로 눈의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통에 들어있는 인공눈물에는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한 번 점안 시 1~2방울, 하루 4~6회가 적당합니다.

Q_안구건조는 물론 눈 충혈도 심합니다. 시중에서 약을 사도 괜찮을까요?

A_안구건조가 심해 하루 6회 이상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존제가 없는 무방부제 인공눈물 사용을 권합니다. 단, 눈이 충혈돼 임의로 '충혈제거제'를 구입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 약 일부에는 혈관수축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시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Q_눈 화장을 한 날, 유난이 눈이 건조합니다. 기분 탓 일까요?

A_눈꺼풀에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장애가 오면 눈물의 증가가 빨라져 건조증 이 오게 되는데요. 아이라이너 등을 이용해 눈꺼풀에 화장을 한 후, 제대로 지워내지 않으면 기름샘에 염증 이 생겨 건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안검 세 척액이나 베이비샴푸(따뜻한 물에 1:10으로 희석)를 거즈나 면봉에 적셔, 속눈썹이 난 부분을 5회 가량 적 당히 문지른 후 따뜻한 물로 세척하세요.

Q_ 안구건조증이 시력과는 상관없겠죠?

A_안구건조증이 계속되면 각막에 상처가 생겨 각막염 과 같은 질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력저하 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치료해야 합니다.

춘삼월에 만난 봄의 얼굴들



벚꽃과 유채꽃이 만났다 (제주 녹산로)

유채꽃과 벚꽃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꽃길 '녹산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봄물이 들었습니다. 벚꽃의 개화 시기는 4월 초까지로 아주 짧지만, 유채꽃은 이보다 더 오랫동안 피어 사람들을 기다리는데요. 다만, 코로나19 기세가 여전한 만큼 길을 걷기보단 '차안에서 눈으로만 즐길 것'을 추천합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배꽃의 향연 〈천안 성환읍〉

4월은 배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벚꽃 못지않은 우아한 자태로 아스라한 풍경을 선사하죠. 그중 천안 성환읍은 배꽃을 감상하기에 둘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차로 10분 넘게 달려도 배꽃의 향연이 끝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내비게이션 검색어는 '정공테크'입니다. 주소도 마땅치 않을만큼 얼마나 꽁꽁 숨겨진 명소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왕림리 390-20

꽃망울이 팡팡 터지는 춘삼월. 그냥 있기엔 이쉬운 분들을 위한 봄 큐레이션 모음집!



버스커 버스커 〈벚꽃엔딩〉

벚꽃 잎이 흩날리는 거리를 함께 걷고 싶다는 남자의 달콤한 고백이 전국의 여심을 제대로 저격한 곡이죠. 2012년에 발표됐지만 여전히 봄만 되면 차트에서 부활하는 불후의 명곡입니다. 노래를 작사·작곡한 가수 장범준 씨는 이노래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버스커 버스커의 흩날리는 벚꽃 잎의 활약은 올봄에도 여전히 계속될 전망입니다.

Yall (Together)

지금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떠나고 싶어지는 노래 〈Together〉는 스페인 EDM DJ 얄(Yall)의 노래입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도 서울, 뮤직비디오 주인공도 한국인이라는 독특한 연출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뮤직비디오 내내이어지는 '한국의 롱보드 여신' 고효주 씨의 놀라운 기술은단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감정들이 기다리는봄, 〈Together〉에서 만나보세요.



산드로 보티첼리 〈봄〉

얼핏 보면 작품명이 '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소 어두운 색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지만, 작품 속엔 무려 500여 종에 달하는 꽃이 그려져 있답니다. 이들 꽃은 주로 피렌체에 서식하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작가의 상상으로 구현된 꽃도 존재한다고 하죠. 작품은 '위 대한 자 로렌초'의 조카 메디치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가문에서 주문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스한 봄바람에 꽃이 피는 것처럼, 사랑의 결실을 이룬 신혼부부의 단꿈을 표현한 것이죠. 사랑의 단꿈은 화면 정중앙에 서 있는 비너스와, 그 위로 활을 겨누고 있는 큐피드가 완성합니다. 금화살로는 사랑을, 납화살로는 미움을 느끼게 하는 큐피드는 다행히 금화살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곧 눈을 가린 큐피드의 활에 맞은 사람은 맹목적인 사랑에 빠질 테죠. 한편, 화면 오른쪽에는 아바타를 닮은 시퍼런 남성이 보입니다. 섬뜩한 모습이지만, 그는 바람의 신 '제피로스'입니다. 지중해 인근 지역에서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서풍을 의미하죠. 제피로스의 손에 잡힌 여인은 봄의 요정 '클로리스'입니다. 입에서 장미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영락없이 봄을 닮았습니다.



서동빈 〈우리 사랑 매년 봄꽃 같았으면 좋겠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는 늘 사랑이 꽃피면 좋겠습니다. 31개의 시와 31개의 에세이, 31개의 삽화가 몽글몽글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연애시집인데요. 오늘밤 꺾지 않으면 내일이면 시들 꽃처럼 언제고사라져버릴 사랑이라 하더라도 이봄, 여러분 곁을 맴도는 사랑은 감히 영원을 맹세할 만큼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우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알고 보면 사람들은 참 이상하고도 신기한 존재였다. 꽃은 타고난 대로 피어나고 질뿐인데 그걸 몹시 사랑하고 예뻐 하고… 꽃말까지 지어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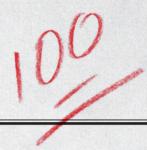
따뜻한 마음의 온도가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시골 마을의 낡은 기와집에 자리한 작은 서점을 중심으로 '용서와 치유', 그리고 '사랑'을 담아낸 소설인데요. "날 풀리면 보자"는 그저 말로만 끝나는 순간들이 이봄에는 이어지질 않길, 직접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2020년 4월호

애독자 모의고사

성명			

전화	번호
----	----



모든 해답은 월간 〈내일〉 4월호에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정해진 의무고용률을 따르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가인 '이것'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 2 장애인 고용부담금
 - ③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 4 중증장애인 인턴제



10페이지를 살펴보세요.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중 관련 없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2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3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지원
- 4 동료지원가 활동 연계

힌트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의고사 답안, 이렇게 보내주세요!

엽서로 제출시 엽서에 답안을 기입한 후,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웹진으로 제출시 기본 '카메라' 앱을 연후, QR코드가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한 후, 정답을 입력합니다.

*QR코드가 스캔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설정 > 카메라 > QR코드 스캔 'ON'으로 변경 > 위 방법대로 다시 시작!

2 · 3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이희중님
 이재아님
 김진아님
 이연섭님

 탁종열님
 우순자님
 신재희님
 *퀴즈 단천

 탁종열 님
 우순자 님
 신재희 님
 * 퀴즈 당첨자 분들껜 4월 중으로

 이공주 님
 이선영 님
 유옥자 님
 커피 쿠폰을 선물해드립니다.

경경 > 위 방법대로 다시 시작! 웹진<u>으로</u>

〈월간 내일〉을 만나는 세가지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스캔하시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1. 인쇄 잡지로 만나기

엽서를 보내시거나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2.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com'을 입력하세요.

3.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월간 내일'을 입력하시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세요.

www.labor21.com

